“엄중한 안보 상황 인식…확고한 대비태세 유지하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강릉기지·방공관제부대 방문·점검
태풍·호우로 인한 작전 공백 막고
장병들 온열질환 방지 조치 당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11일 공군 강릉기지와 방공관제부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이 총장은 각 부대의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고 임무 현장 전반을 점검했다.

이 총장은 “최근 북한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다변화하고 대형 구축함을 건조하는 등 지속해서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며 “엄중한 안보 상황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높은 책임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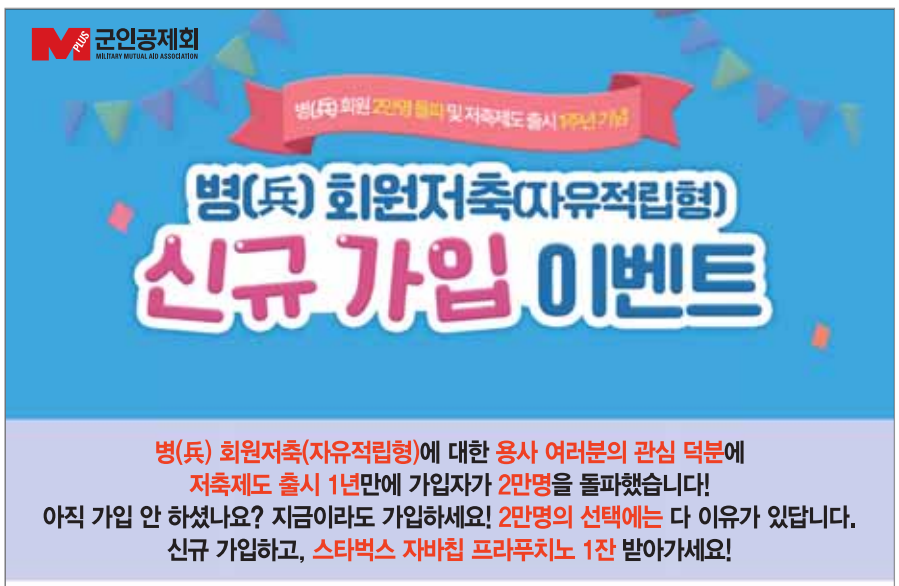
또한 지휘관과 간부들에게 지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고 능동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총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폭염에도 본연의 임무 수행에 매진하는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하계 재해·재난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 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극한의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은 지리적·지형적 특성상 태풍과 호우로 인한 침수 등 여름철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이라며 “취약지역과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관리해 작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병들의 온열질환 방지를 위해 일과 조정,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달라”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이영수(오른쪽 둘째)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1일 공군 최북단 방공관제부대를 방문해 부대 주요 시설들을 살펴보며 군사대비태세와 하계 재해재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공군 제공



병(兵) 회원저축(자유적립형)에 대한 용사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저축제도 출시 1년만에 가입자가 2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아직 가입 안 하셨나요? 지금이라도 가입하세요! 2만명의 선택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신규 가입하고, 스타벅스 자바칩 프라푸치노 1잔 받아가세요!

이벤트 기간	'25. 7. 10. (목) ~ 9. 30. (화)
이벤트 대상	'병(兵) 회원저축(자유적립형)' 신규 가입 완료 회원 (당첨자 발표일 기준) *신규 가입 완료 : 회원가입 신청 + 입금 완료
이벤트 경품	스타벅스 자바칩 프라푸치노 1잔 (6,500원)
응모 방법	STEP 1 병(兵) 회원 홈페이지 〉 소식정보 〉 이벤트 접속 하단 '참여하러가기' 클릭 STEP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문자서비스 수신 동의' STEP 3 '병(兵) 회원저축(자유적립형)' 신규 회원가입 신청 + 입금 완료
당첨자 선정	신규 가입 완료 회원 전원 지급 ※ 이벤트 참여인원 5,000명 도달 시, 이벤트 조기 종료됨 ※ 이벤트 기간 내 1인당 1회 참여 가능
당첨자 발표	익월 15일 이내 (홈페이지 / 앱 공지사항 안내)
문 의	고객센터 1599-9090, 1544-9090

유의 사항
- 이벤트 당첨 시 휴대폰 번호로 경품 신청 문자가 자동 발송되므로 **반드시 개인정보를 최신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번호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중복 발급 불가)
- 본 이벤트는 당첨자 발표일 기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문자서비스 수신 동의**'를 선택한 경우, 원활한 경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경품의 **유효기간 (180일)**이 **초과**되면 **기간 연장 및 재발급이 절대 불가**하므로, 기간 내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이벤트는 참여 인원이 **5,000명에 도달**한 경우,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일 기준 회원가입 신청** 및 **입금 완료된 회원**에 한해 **경품이 지급**됩니다.
- **병(兵) 회원저축(자유적립형) 신규 가입 완료** 시, **이벤트에 자동 응모** 됩니다.

육군22사단 집체교육으로 신임장교 힘찬 첫걸음 도와

육군22보병사단이 신임장교들의 조기 적응을 돕고 임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사단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신임장교 115명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했다.

교육은 신임장교들의 자긍심 향상과 불안감 조기 해소, 초급 간부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열렸다.

교육에서 신임장교들은 사단 본부에 모여 나흘간 19개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사단은 지휘관 간담회를 비롯해 예술치유 활동(아야진 마음관리소), 금융교육(서민금융진흥원), 자기 이해로 시작하는 건강한 관계와 소통의 길(서울사이버대학교 주관) 등 외부강사 초빙교육을 편성했다.

교육에 참가한 포병여단 엄태성 소위는 “새로운 부대 생활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고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며 “부대 생활에 조기적응해 전선 최북단에서 완전작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강봉일 육군22보병사단장이 신임장교 집체교육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박준용 군무주무관

유지현(중령) 교육훈련참모는 “신임장교들이 힘찬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준비했다”며 “각자 위치에서 사단 전투력 발휘의 핵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해군1함대, AI 전문가 초빙 미래전 대비 역량 교육

해군1함대는 지난 11일 “‘퍼스트 인사이트: 국방 인공지능(AI)’ 초빙 강연을 전날 사령부 회의실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퍼스트 인사이트’는 1함대가 장병들의 안보 의식을 함양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민간 전문가를 초빙해 다양한 주제로 강연하며 부대 발전과 혁신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강연자로는 AI 전문기업 마키나락스의 윤성호 대표가 나섰다.

‘산업특화 AI, 미래 산업을 다시 쓰다’를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는 AI 시대 국방 분야 활용성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 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이 오가며 열띤 토의가 펼쳐졌다.

윤 대표는 강연에서 AI 에이전트를 포함한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하며, 제조·국방처럼 보안이 엄격하고 데이터 접근이 어려운 특수한 환경에서는 범용 AI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산업 현장에 적용된 AI 사례를 공유하며 이를 국방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했다.

지난 11일 해군1함대에서 열린 ‘퍼스트 인사이트’ 초빙 강연에서 곽광섭(오른쪽) 사령관이 마키나락스 윤성호 대표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부대 제공

강연에 참석한 제갈현영(중령) 지휘통신대대장은 “AI 기술의 잠재력을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였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